2023.6.9

미래에셋증권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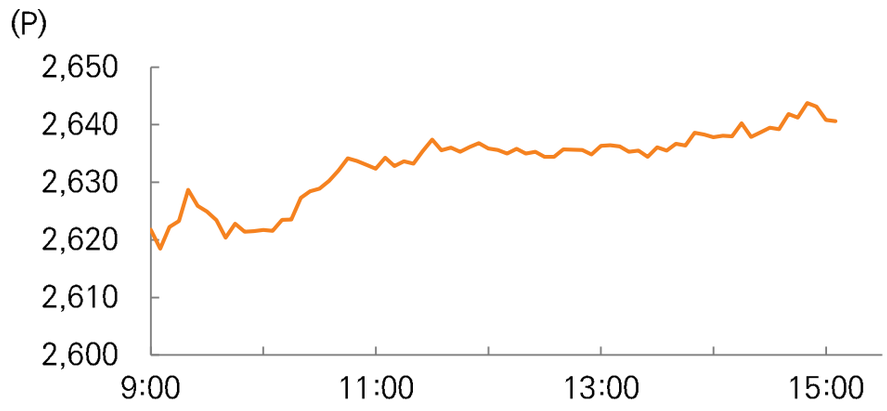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코스피,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주 중심 상승 주도

한국 증시 장중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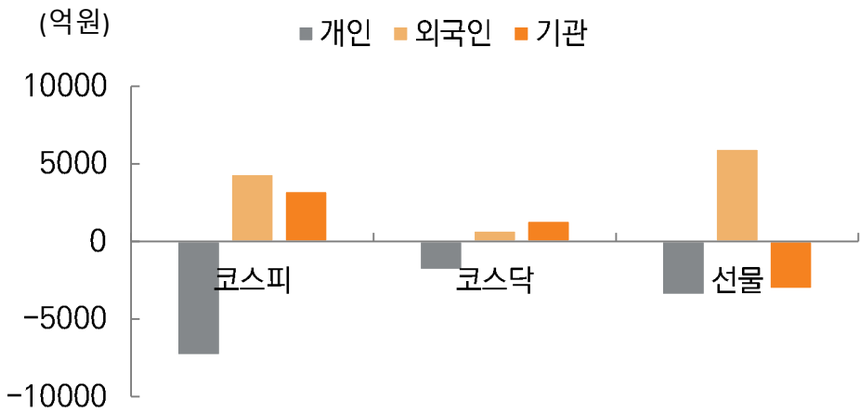
[코스피, 원화 강세와 대형주 중심 외국인 매수 확대에 상승]

코스피 지수 일중 추이



출처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15:00 기준)

투자자 매매동향



출처 : 카이로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15:00 기준)

대형주 중심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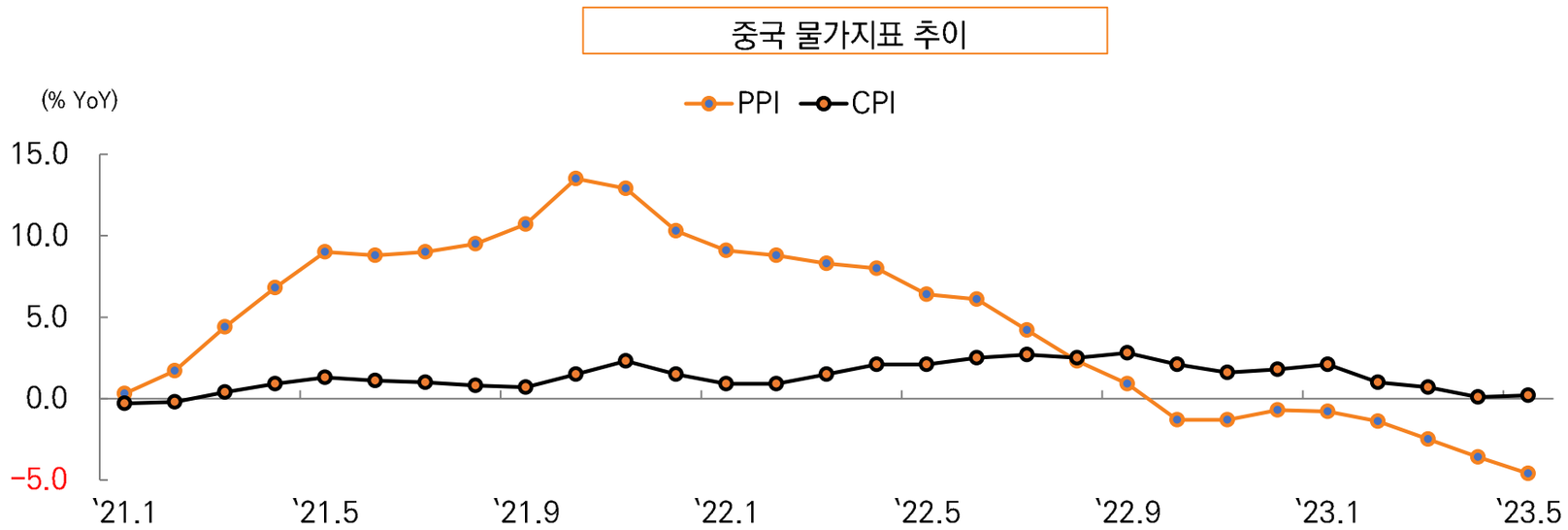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하면서 대형주 중심 기술주, 반도체 업종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특히 반도체, 2차전지주 강세에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강세.

반도체주 강세. 최근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세와 SK하이닉스가 5월부터 세계 최고 기술을 적용한 제품 양산 시작에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

2차전지주도 상승. 테슬라의 스페인 공장 신규 건설 기대감과 북미지역 전기차 충전 표준화 선점 등의 호재에 따른 상승세 지속에 동조화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국 증시, 전기차 및 가전 소비부양 정책에도 상승폭 제한]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중국 주요 지수는 보합권 등락 반복 후 상승 전환.

상무부에서 전기차 및 가전 소비촉진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장초반 발표된 5월 물가지표 둔화에 상승 제한. CPI +0.2% (예상 +0.2% , 전월 0.1%) , PPI -4.6% (예상치 -4.3%, 전월 -3.6%)를 기록하며 여전히 경기 둔화 우려는 상존. 외국인 매수 유입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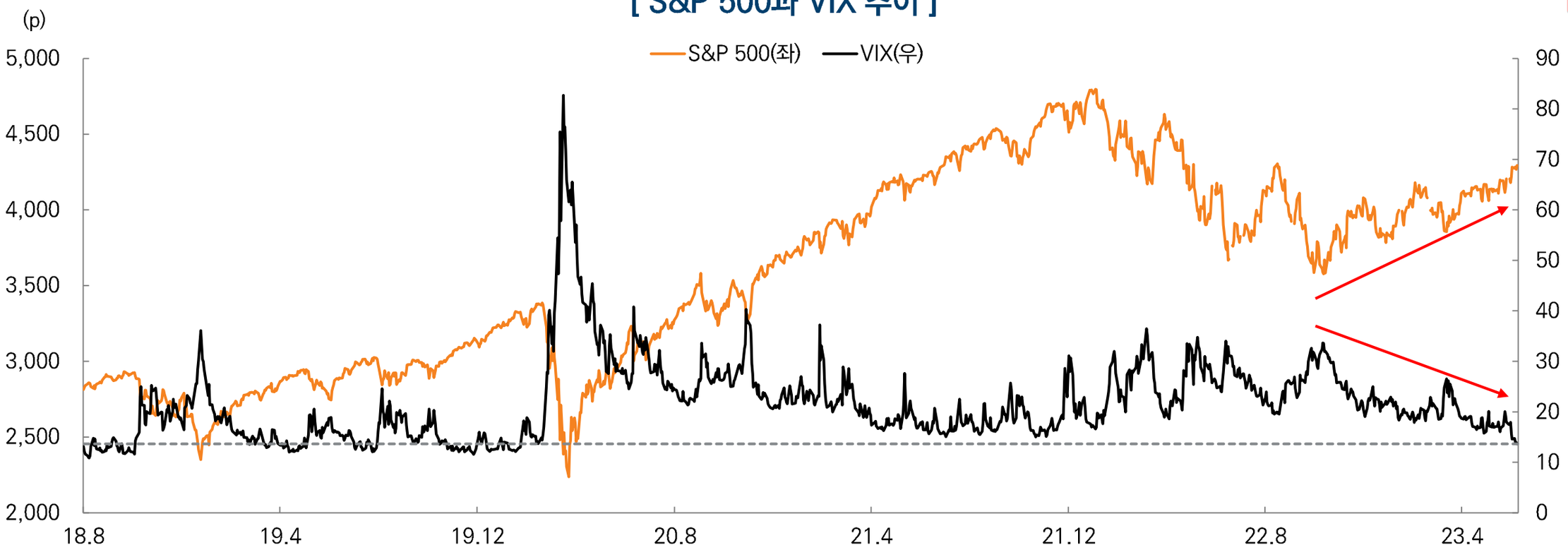
홍콩 주요 지수는 상승. 전기차, 음식료 업종 상승.

금융, 부동산 업종 약세

미 증시 전망

[S&P 500, 오늘 4300선 돌파 시도]

[S&P 500과 VIX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재닛 옐런 “은행들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준비. 앞으로 몇 가지 어려움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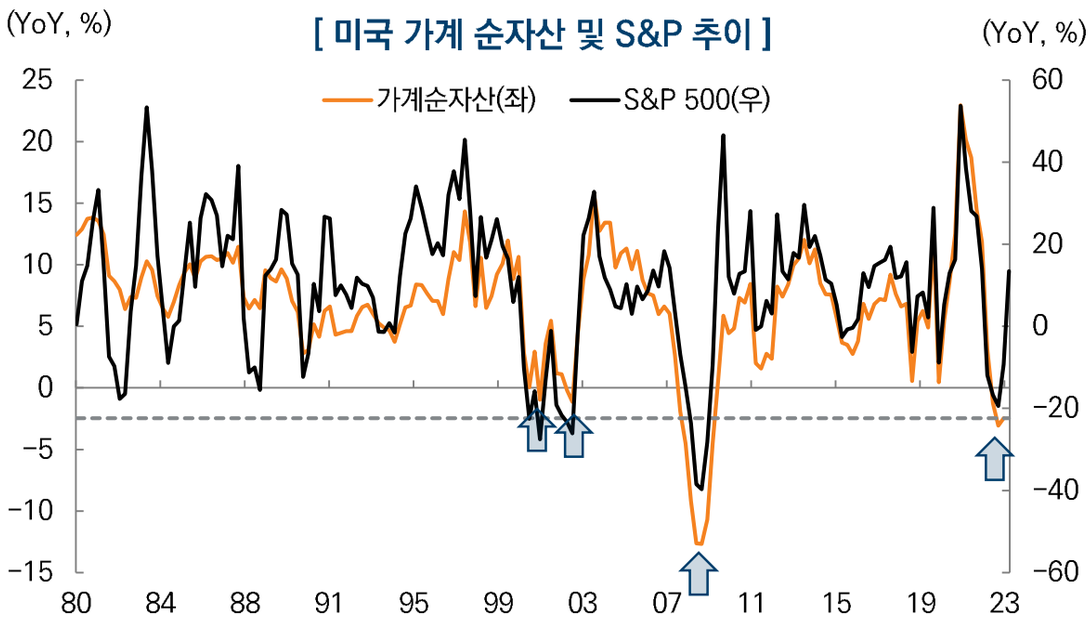
(미 재무장관)

S&P 500 지수는 지난 해 10월 저점 이후 20% 상승하며 ‘기술적’ 강세장 진입. 최근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 신호 나타나. 이에 변동성 지수인 VIX는 3년래 최저 수준 기록. 다음 주 슈퍼위크 앞두고 금일 4300선 터치 여부 주목

(미국 FOMC 회의, 5월 CPI 및 산업생산·소매판매, 선물옵션동시만기일 등 예정)

미 증시 전망

[S&P 500, 오늘 4300선 돌파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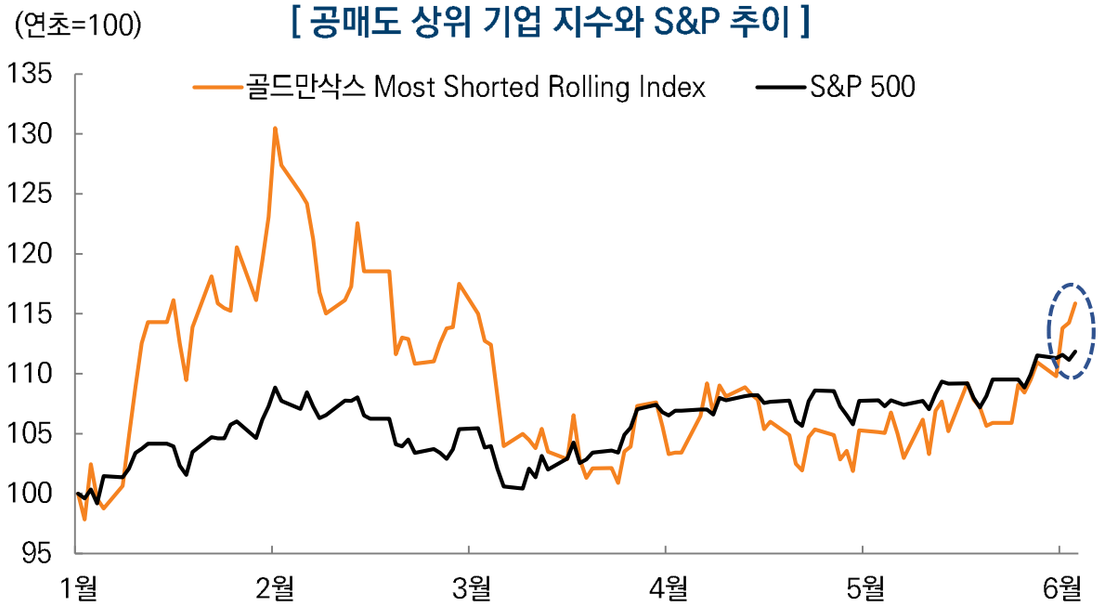


자료: Fed,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비영리기관 포함

미국 가계 순자산 2분기 연속 증가

*** 23년 1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은 전분기대비 3조 달러 증가한 149조 달러 기록**

- 증시 상승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2.4조)이 부동산 가치 감소(-$0.62조)를 상쇄
- 다만 전년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증시와의 방향성 괴리도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Risky, Risk on?

*** 골드만삭스는 공매도 상위 기업들을 지수화 한 'GS Most Shorted Rolling Index'를 발표**

- 이 지수는 3월 은행위기 전까지 S&P 500 대비 '아웃퍼폼' 했지만, 은행위기 발생 이후 '언더퍼폼' 으로 전환
- 주요 지수가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하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유망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관심 다시 높아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